

## 섬유 업계에서 들려오는 토막 소식들 <14>

### ◎ 중국에서의 생산은 아직도 여러모로 불안정한 상태

중국에서 만든 타월을 필리핀에서 판매해 보려고 한 일본계 회사가 있었다. 그런데 필리핀 현지에서 타월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 보니 “중국의 타월은 얇고 싸구려라서 이 가게에서는 팔지 않는다.”고 하며 쌀쌀하게 대답도 잘 안 해주었다고 한다. 확실히 미국의 판매장에는 대부분 두껍고 무거운 타월이 즐비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필리핀은 오래 전에 미국의 식민지였으므로 아직도 어느 정도 미국의 영향력이 남아 있었다.

물론 중국이 필리핀에 수출하려고만 하였으면 필리핀 사람들이 좋아할 타월을 간단히 만들었을 것이다. 사실 중국에서는 일본 사람이 좋아하는 얇고 가벼운 타월을 대량으로 만들고 있다. 일본에서 소비되는 타월의 80% 정도가 중국산이다. 그러한 중국에서의 생산이 최근에 매우 불안정하게 되어 있다.

중국의 노동력 확보난(勞動力 確保難), 인건비 상승(人件費 上昇), 폐수 규제 강화(廢水 規制 強化) 등의 구조적 요인이 그 배경에 있기 때문에 무언가 발본책(拔本策)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은 이렇다 할 만 한 대책을 듣지 못하였다.

그런데 센카쿠 열도(尖閣列島, 중국에서는 釣魚島, 다오위다오라고 부르며, 일본, 중국, 대만 간 영유권 분쟁이 되고 있음) 앞바다 어선 충돌 문제라는 불길한 냄새나는 요소가 늘었다. 잇을 만하던 중국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다. 업계의 공기가 한층 더 무겁게 되었다.

### ◎ 중국의 오랜 공급 과잉 상태가 춘절(春節, 설) 이후로 사람 부족, 인건비 상승 등으로 납기 못 지켜

일본의 섬유 업계에서 가격 결정권이 섬유 공정의 업 스트림(上流)에서 다운스트림(下流)로 넘어간 것은 공급 과잉 상태가 일상화하였기 때문이다. 결정권을 넘겨받은 유통업자는, 시세보다 싼 값보다도 더 싼 상품이 나올 가능성을 두려워하면서도 조금이라도 더

싸게 만들어주는 공장을 있는 힘을 다하여 찾아다녔다.

그러한 경쟁을 가능하게 한 거대한 중국이, 어려움에 빠진 일본의 생산을 대신 맡아왔다. 중국은 오랫동안 일본을 위하여 ‘좋은 것을 값싸게’ 만들어 냈다. 그런 노력의 보람이 있어 중국의 GDP(Gross Domestic Product : 國內 總生産)는 2010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 2위로 뛰어오를 것 같다.

금년(2010年) 초의 춘절(春節, 설) 이후로, 중국 생산품이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판매점에서 잘 안 팔리는 것이 아직 표면화하고 있지는 않아도, 금년 추동절 상품의 납기도 계속해서 많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람 부족, 인건비 상승, 폐수 규제 강화 그리고 중국 국내 수요가 확대된 것이 원인이다.

이들은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생산을 줄이는 문제는 앞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내수는 계속 확대될 것이다. 이제까지 오래도록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 공급 과잉 상태가 어쩌면 변화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 ◎ 셔터 거리를 그림으로 장식

오카야마현(岡山縣) 구라시키키시(倉敷市)의 고지마 지구(児島 地區)에서는 고지마 진즈 스트리트 추진 협의회(児島 jeans street 推進 協議會)가 아지노 상점가(味野 商店街)에 많은 진즈 숍(jean shop)이 들어서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진즈 숍은 5개 점포가 있는데, 이외에도 데님 소품(denim 小品) 등을 팔고 있는 잡화점이나 안티크 가구점(antique 家具店)이 늘어서 있는데, 아직도 셔터(shutter)를 닫고 있는 빈 점포도 많다. 빈 점포에는 빨리 개점토록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닫혀 있는 셔터를 활용하여 일러스트(illustration)를 그리는 이벤트가 시작되었다.

일러스트는 2010년 6월에 공개적으로 모집하였다. 모두 47점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진즈 기업 종업원이나 전문학교 학생, 중학생 등 7개 작품이 뽑혔다. 5개 점포의 셔터에 이들 응모자가 직접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는데, 현재까지 2개 점포분(分)의 페인팅(painting : 그림 그리기)이 끝났고, 한 달이면 5개 점포의 일러스트가 모두 끝날 예정이다. 별로 관심이 없던 셔터에도 진즈를 모티프(motif : 테마)로 한 일러스트가 그려져서 찾아오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고지마의 진즈 거리임을 실감나게 하고 있다.

### ◎ 일본의 섬유의 힘이 우주복 등에서 호평 받아

2008년 3월에 국제 우주 스테이션(國際 宇宙 station : International Space Station - ISS)의 우주선을 타고 갔던 일본의 우주 비행사가 우주선 안에서 입는 일상복의 착용감을 확인하는 실험을 하였다. 일본의 섬유 기업이 개발한 우주선 내복은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우주선 안에서는 세탁을 할 수 없으므로 하나의 의복을 오랫동안 입어야 한다. 뽁뽁 간혀있는 공간에서 체취(體臭), 배설에 따른 냄새도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주선 내복에는 높은 수준의 소취(消臭), 항균 방취(抗菌 防臭), 제균 기능(制菌 機能)이 있는 소재가 사용되었다.

칠레(Chile) 북부의 코피아포 광산(Copiapó mining)에서 일어난 낙반 사고(落磐 事故)로 지하 700m의 대피 장소(shelter)에 갇혀 있던 광부 33명이 구출되었다. 구출은 2달 넘게 걸려 광부의 건강이 크게 걱정되었는데 다행히 모두 건강하였다.

갇혀 있는 우주 공간의 경험을 살려 미국 항공 우주국(美國 航空 宇宙局 :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 NASA)도 적극 협력하였다. 갇혀 있는 사람들의 기분을 바꿔주기 위하여 일본 소니(SONY)의 휴대용 게임기도 땅속 대피 장소로 넣어 주었다고 한다.

우주 비행복에서 일본의 ‘섬유의 힘’이 매우 쓸모가 있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 일본은 남이 못 만드는 것으로 이겨낼 수 있어

“제품끼리의 승부는 중국을 이길 수 없지만, 소재로는 남이 못 만드는 것을 내 놓음으로써 중국과의 승부에 어드밴티지(advantage : 利點)를 꼭 쥐고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모리린 상사의 원사 그룹 통괄 부장은 말하였다.

다품종 소로트(多品種 小lot), 단납기화(斷納期化)로 되어 가는데, 스무드(smooth)하게 소재를 공급해 나가기 위하여도 방적이나 합섬, 산지 등의 일본 국내 생산 기반을 갖고 있는 기업과 협업(協業)을 맺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며, 그들과의 협조로 장섬유나 단섬유의 장단 복합 정방 교연사(長短 複合 精紡 交撚絲)인 ‘텐셀 쿨(Tencel cool)’과 같은 독자성이

있는 소재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 소재 개발에 있어서는 “블랙박스(black-box : 기능은 알려져 있으나 내부 구조는 알려져 있지 않은 장치)를 꼭 잡고 있어야 하며, 아직은 비즈니스 찬스(business chance)가 많이 있다.”고 통괄 부장은 여유를 보였다.♣